

# 광주 서민금융 의존 높다

## 대출건수 2만3347건... 영세업자·저소득층 많은 탓

광주지역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가계 대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이 분석한 '광주지역 서민금융 현황'에 따르면 미소금융, 햇살론 등 6개 서민금융의 지역 취급건수가 모두 2만3347건, 취급금액은 194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취급건수(58만2708건)와 취급액(4조9359억원)의 4% 수준으로 광주지역 인구수 비율(2.9%)이나 지역 총생산 비율(2.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광주지역 서민금융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기반이 취약해 서비스업 비중(73%)이 높고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비중이 높는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 88.9%가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78.2%는 '금년도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이용실적은 광주지역 7개 지점에서 총 1072건에, 163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햇살론'은 광주지역에서 모두 1만960건에 998억원이 지원됐다.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 대출'도 지역 내 219개 은행지점에서 총 5161건에 427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자들에게 지급한 소액대출액은 118억원으로 이용건수는 3950건이었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

해주는 '바퀴달림론'은 지난 2010년 902건, 87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137건에 123억원으로 이용실적 크게 증가했다.

새마을 금고가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희망달림론'은 총 165건에 30억원을 대출했다.

특히 지역민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퀴달림론 경우 광주지역 건당 평균 금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미소금융은 광주가 1521만원, 전국은 1385만원이었으며, 햇살론은 광주가 910만원, 전국은 894만원으로 집계됐다. 바퀴달림론도 광주는 1030만원, 전국이 1013만원으로 광주의 건당 평균 금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깜찍해졌어요** 2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미니 과일 모음전을 열고 미니 파인애플, 미니 대저토마토, 미니 참외 등을 선보였다. 미니 파인애플 가격은 개당 4500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속수무책' 모바일 뱅킹 해킹

## NH 하루 700건 접속... 금융기관 실태 파악도 못해

위·변조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해킹 앱)을 통해 모바일뱅킹에 접속하는 사례가 수년간 확산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해킹 앱을 이용한 접속 시도가 NH농협은행에서만 하루 평균 700여건에 달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비슷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수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 앱이란 멀쩡한 앱을 '탈옥(해킹)'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도록

위·변조한 것을 말한다.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가 휴대전화의 성능을 높이거나 유료 앱 등을 무료로 쓰려고 스마트폰을 '탈옥'한다.

인터넷에는 '탈옥(해킹한)폰으로 XX은행 앱 쓰기' 등을 검색해보면 누군가 변조해놓은 해킹 앱이 무수히 많다.

이 앱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안장벽을 우회해 접속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 해킹 앱을 만든 사람

이 앱에 다른 의도의 명령어를 숨여 놓으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유출돼 대형 금융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남의 휴대전화를 조종해 계좌의 돈을 몽땅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피해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은행 해킹 앱은 스마트폰 용 모바일뱅킹 앱이 나온 수년 전에 등장해 확산하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모바일뱅킹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모두 막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직접 발급

## 광주은행 앱 서비스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스마트폰뱅킹 사용자가 PC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직접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

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뱅킹 사용자들은 과거 PC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옮겨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폰에서 직접 공인인증서 발급·갱신·폐기 및 타행 인증서 등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JB스마트폰뱅킹'은 안드로이드 마켓 및 금융결제원 다운로드 페이지(m.kmbstore.com)에 접속해 광주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강현 광주은행 U뱅킹사업부 부장은 "금번 안드로이드OS편칭을 계기로 아이폰OS, 아이패드 등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인터넷 쇼핑 환급 늦추면 배상

## 공정위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작위명령이 신설됐다.

대금 환급 거절이나 지연 때 지연배상금을 더한 환급명령을, 재화 등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교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

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4차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로써 파워블로거,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반적 소비자 유행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 피해 유발을 예방하고 소비자자본을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명서류를 추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했다. 다만, 5만원 미만 재화 거래 등은 해당자료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 카드사 지난해 순익 반토막

## 1조3천억...연체율 상승에 대손비 급증

지난해 카드연체율이 상승하면서 6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

위험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6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의 2조7000억원에 비해 52.0%,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총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총당금 적립기준이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의 대손비용이 급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

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총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했다. 신용관매와 카드대출을 분리해 총당금을 쌓게 했는데 연체 1개월 미만의 정상여신의 경우 신용관매는 1.5%, 카드대출은 2.5%를 쌓도록 했다.

연체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여신의 경우에는 신용관매 40%, 카드대출 50%로 총당금 적립 기준을 대폭 높였다.

이 영향으로 전업카드사의 대손비용은 2010년 32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903억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총당금 적립기준이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의 대손비용이 급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

/연합뉴스

# 전남농협 남악시대 연다

## 23일까지 완전 이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90년만에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남악시대를 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오는 23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신사옥(사진)으로 이전한다. 개소식은 4월 중순 이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922년 광주 동구 대의동에 금융조합을 근간으로 1961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통합을 하면서 농협중앙회 전남도지부가 설립돼 종합농협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1976년 대의동에 사육을 신축을 하면서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애환을 함께 해오다 2006년 대의동 사육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편입되면서 현 광주 북구 중흥동 남악빌딩으로 임시 이전했다.

전남도청 남쪽에 자리한 신사옥은 업무용과 하나로 클럽의 판매동 2동으로 이뤄졌다. 업무동은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 판매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일 새출발에 맞춰 경제사업 활성화와 사업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본부 경제사업부 조직을 기존의 3개 팀에서 경제기획팀·산지육성팀·시장개척팀·양곡자재팀·축산사업팀 등 5개팀으로 확대했다.

조영조 본부장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업인이 웃는 날까지 책임지고 팔아 주는 판매 중심 전남농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세계4대 미항여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니(Yeony)    수니(Suny)

###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5. 12 ~ 8. 12

**주 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항 일원

**참가규모** 106개국, 10개 국제기구

청결·질서·친절·봉사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은 박람회 성공의 열쇠!